

## ○ 해외동향 ○

# 대만, 지진 발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지난 21일 발생한 진도 7.7의 강진으로 인한 정전, 단수 등의 영향으로 현재 대만 중부 지역 대부분 업체는 가동 중단상태에 있다. 이로인한 전체 산업 손실액은 3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주식시장과 선물시장도 휴장기로 결정하는 등 대만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대만 업계의 피해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긴급 분석해 본다.

## 1. 전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 전력공급

대만 국영 臺灣電力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중부 지역 발전소가 파괴돼 전력을 북부지역으로 송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업용 전력의 경우 향후 2주내 정상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며, 타이쥬 이북지역에 대한 민간용 전력 송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일부지역의 경우 여전히 단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전력송출이 완전 회복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정전사고시 정상 회복까지 약 14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단전상황의 완전 회복시점에 대해서는 臺灣電力으로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업용 전력 송출에 대해 臺灣電力은 일단 嘉民 초고압 변전소로부터 기존 남부지역으로 송출하던 전력을 끌어와 북부지역 峨崙 변전소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 변전소 부근 송전탑이 지진의 영향으로 약 15도 가량 기울어진 것을 발견, 이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臺灣電力 賴世章 부총경리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민간용 전력은 제1, 2기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 정상 가동됨으로써 빠르면 25일밤까지는 대부분 정상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만 전체 가구수는 1,031만 가구에 달하는데 22일 새벽 현재까지 약 50%에 달하는 496만가구가 아직 단전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臺灣電力의 송배전 시스템 5,179개 라인중

3,096개 라인이 파괴돼 전력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라인의 완전 복구까지는 약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나. 용수 공급

대지진은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용수공급 까지 영향을 미쳐 대만 중부지역의 경우 단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진의 1차 진원지인 타이중(臺中) 지역은 물론, 인근 평위엔(豐原), 똥스(東勢), 미아오리(苗栗), 쟡화(彰化) 지역은 단수되고 있다. 대만의 실리콘벨리라고 할 수 있는 新竹 과학공단 역시 용허(永和) 저수지의 송수 파이프 파열로 현재 용수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대만 대부분 지역에서 저수지는 별 피해가 없으나 실제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 라인이 파괴돼 용수공급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는 우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주(新竹)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을 24시간내 재개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또한 경제부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정수업체를 동원해 피해가 심각한 중부지역에 대한 물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 다. 피해복구 상황

이번 지진으로 대만은 인명, 재산상의 손

실을 비롯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현재 사망자수는 1,800명 이상에 달하며 부상자 수 6,300여명, 실종 219명에 이르고 있고, 추후 사망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만정부는 피해복구에 최소한 NT\$ 수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일단 1999~2000 회계연도 기간중 기확보돼 있는 NT\$ 180억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예산 편성과 함께 공채발행, 정부소유 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 라. 전체 대만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만내 대다수 학자와 정부에서는 이번 지진 발생으로 국가 중요 기반시설의 피해만 없으면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와 서비스업 및 제조업 수입증가 등으로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經濟建設委員會는 '99년 경제성장률은 지진영향으로 분명히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행정원은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을 5.7%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대지진의 주요 피해지역은 대만 중부와 북부지역으로 이 지역내 산업기반은 상당

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원은 전체 제조업이 1주일 가동을 중단하면 약 NT\$ 400억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단 이번 지진으로 인한 전체 산업 피해액은 NT\$ 1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인해 행정원은 '99년 대만 경제성장률이 약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제건설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대만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의 산업회복 능력이 강하고 업계의 생산차질이 곧바로 전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않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중앙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자료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주요 사회간접자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지않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 中華經濟研究院도 이번 지진으로 대만의 대외수출에는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나 대만의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틀이 양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말했다.

## 2. 한국의 대외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만의 지진발생으로 우리 수출업계는 상

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대만과 경합관계에 있는 반도체, LCD, 모니터, 컴퓨터, 석유화학분야에서 수출특수가 기대된다. 역시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대만내 최대 피해자는 반도체 업계이고 한국내 최대 수혜자 역시 반도체 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제 반도체 시세는 대만 지진 발생 보도직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한국 반도체 업계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피해를 입은 빌딩, 건물의 복구는 물론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개발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근, 형강 등 관련 철강자재, 굴삭기 등 건설중장비, 시멘트 등 건축기자재 등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터키 강진에 이어 대만에도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자 현지 철강업체들은 정부에 건축용 철강재를 내진철강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빠르면 내년부터 건물 건축에 있어 내진 철근 사용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업계로서는 내진용 철강제품의 대대만 수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臺灣電力에 의하면 현재 노후화된 전력 송배전 설비의 교체를 추진 중으로 관련 전력기자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7월말 정전사태에 이어 이번 지진으로 인한 단전 등의 영향으로 주요 건물마다 자가발전용 발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수출도 유망시 된다.

또한 섬유류의 경우 대만은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등 화섬제품 시장을 놓고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나 이번 지진 피해로 적잖은 주문이 한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국내 화섬업체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만업체들의 잇단 증설 등으로 국제화 섬유시장이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을

겪어온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의 수출 가격 회복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중국, 동남아, 서남아 지역의 주요 유화제품 수요업체들이 대만지진 발생과 함께 가격 급등과 물량부족을 우려, 한국 유화업체에 수입주문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1~8월 현재 한국의 대대만 수출실적은 39억1,8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만 지진사태로 인한 반도체 등 수출증가로 올해 한국의 대대만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으로 전체적으로 '98년 대비 약 23% 증가한 63억2,2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제공 : Taipei 한국무역관)

## 일본, 수입촉진 유도품목으로 건축자재·전력기자재 유망

'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만큼 장기 불황에 허덕여 왔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은 기업의 담보 부족을 초래했으며 이는 기업의 금융조달에 난관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와 세계 제일의 채권국이 금융 기관 도산으로 이어지는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지난해 총 60조엔 규모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경기부양에 나선 이후 을 들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기 회복은 내수 회복을 통한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은 물론 엔화 강세로 연결, 우리 수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수출국이라기보다 무역적자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무역역조국이다. 우리의 對日 적자는 지난 '94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 '95년과 '96년에는 150억달러를 넘어서며 對日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로 증가했다. 對日 적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즉 생산을 위한 각종 산업설비는 물론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자재 및 핵심부품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증가할수록 對日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對日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 종합상사 등 바이어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물건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특히 중국산과의 가격에서 차이가 크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의류의 경우, 우리나라가 품질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가격을 고려하게 되면 수입할 메리트가 없고 다만 납기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제품들만 선별적으

로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이다.

對日 진출 유망 품목과 관련해서 도쿄 무역관 최윤희 관장은 향후 일본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일본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건축자재, 복지, 건강, 환경관련제품, 전력기자재, 정보통신기자재, 각종 산업부품류이다. 건축자재와 전력기자재의 경우 일본정부가 코스트 삭감을 위해 경쟁 및 수입촉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건축자재는 일본의 35대 대형 건설업체를 해외 자재조달 창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력분야는 기존의 지역분할을 없애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해외조달을 확대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 복지용품은 일본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산업부품류에 대한 해외조달 확대가 수입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 일본, 자동케이블 두루말이기 소형화 성공

히다치플랜트건설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빌딩, 공장의 건설공사때 케이블부설작업을 크게 간소화할 수 있는 '컴팩트 케이블 8字機'를 개발했다. 이제까지 개발한 자동케이블 두루말이기를 한층 개량한 것으로

컴팩트화함으로써 기기의 반출입의 편리성이거나 면적절약화를 도모했다. 종래 건물 밖에서 행한 케이블의 비틀림방지 작업을 건물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점이 최대의 특징. 시고쿠 전력의 다치바나만화력발전소의 보일러설비공

사등에서 실용화하고 있지만 발전소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공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화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공사에서는 방대한 양의 케이블부설작업이 필요하다. 전선메이커로부터 드럼에 감겨진 상태로 가져온 케이블을 풀 때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새삼 케이블을 8자로 다시 감는 준비작업이 행해진다. 종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넓은 면적과 많은 손이 필요했었다. 동사에서는 이 작업을 보다 간략화 하기 위해 '93년에 케이블자동두루말이機를 개발. 건물밖에 설치한 케이블공장에 설치,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장치전체가 대형으로, 약 8백kg이고 8자형으로 감은 케이블을 작업자가 필요할 때마다 건물밖의 가공장에서 건물안의 부설현장까지 운반하는 수고를 치러야 하며 면

적의 제약으로 건물 안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등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사는 감는 드럼에 가벼운 프레임을 채용했다. 이제까지의 장치와 비교해, 전체의 폭을 약 140cm 축소했고 무게를 약 670kg 경감시켰다. 드럼은 접는 식으로, 장치하부에 캐스터를 부착, 반출입이 쉬워졌다. 또 건물 안에서의 케이블 감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밖으로부터 부설 작업현장까지의 케이블 운반이 그만큼 쉬워졌고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등이 갖춰져 있어 안전성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다치바나만화력발전소의 현장에서는 약 30만m의 케이블부설공사에 적용. 수작업의 경우 1분당 20m 정도였던 감는 속도를 약 60m까지 향상시켰음을 확인했다. 동사에서는 장치를 180만엔에 판매할 예정이다.

## 중국, 입찰법 2000년부터 시행

'중국 입찰법'이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입찰법은 입/응찰행위를 규범화하는 기본법으로서 중국정부는 동 법에 근거, 공개(公開), 공평(公平), 공정(公正)한 입찰을 실시, 경쟁 메커니즘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 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행정분배방식을 철회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입찰을 통한 조달을 규범화,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동 입찰법이 시행되면 첫째,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건설항목과 법률이 규정한 기타 강제

입찰 항목은 반드시 입찰을 통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통한 조달 방법이 고루 발전돼 있지 못한 상태인데다 더욱이 일부 건설분야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국가계획위원회 주요사업 감사부서인 國家計委重大項目稽查辦公室이 '98년 10월 78개 신규 정부 건설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설계와 감리분야에서 입찰을 통한 것은 각각 23%, 44%에 불과했으며 시공, 하청감리 등의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입찰시 반드시 법에 규정한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가중점항목과 지방중점항목중 입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청입찰(발주기관이 몇 개의 특정업체를 선정) 가능분야 이외에는 모두 반드시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활동에 간섭할 수 없으며 개찰과정과 평가기준 및 절차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응찰업체가 낙찰후 계약서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정도가 심각할 때는 유관행정 감독부서가 일정기간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며 그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유관행정 감독부서는 법률과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에 의해 입찰활동을 감독관리하게 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입찰법' 시행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현재 각 지방의 관련 부서에 동기간을 이용 입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법에 저촉되는 기존 규정은 모두 철회하며 동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입찰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그간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화교계 기업의 담합 등으로 건설 및 조달시장 참여가 극히 제한돼 왔던 우리로서는 이러한 법제정과 함께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분야에 대한 진출방안도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조명기구 수입 급신장세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 영국의 조명기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98년 영국의 램프 등 조명기구 수입규모는 £4,100만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입증가세는 영국 경기호조와 주택 경기 상승이 본격화된 '96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국별로는 중국이 £1,800만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벨룩스, 이탈리아, 대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매년 급격한 수출신장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에는 중저가품대에서 폭넓게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8년 £4만6천을 수출해 소량이라는 하나 매년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규격품인 전구의 경우 Philips가 10~12%, TLG와 General Electric이 각각 8%, Whitecroft, Osram이 각각 3~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침실, 거실, 책상용 등 일반 조명기구류는 소비자들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보다는 디자인에 의해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력 브랜드 없이 각국의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최근 아파트와 사무실 디자인 경향이 천장을 높이고 공간분할을 줄인 개방형 loft 스타일이 붐을 이룸에 따라 부분조명기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러개의 작은 유색 전구가 달린 거실용 스탠드 같은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텅스텐 할로겐램프도 가정과 사무실에서 부분조명기구로 각광받고 있으며 촛불 같이 깜박거리는 스탠드나 원격 조도조절 수

위치가 부착된 제품도 수요가 높다.

#### ● 수입동향

(단위 : £ 천)

국 별	1996	1997	1998
중 국	8,261	11,272	17,886
벨 룩 스	1,316	3,070	6,155
이탈리아	2,516	2,801	2,977
대 만	1,161	1,075	1,875
스 페 인	543	920	1,665
미 국	957	1,186	1,516
한 국	18	10	46
총 계	25,868	31,908	40,980

[자료 : World Trade Atlas]

조명기구는 대개 대형 도매업자가 소매점에 공급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데 제조업체들이 직접 소매점과 백화점에 납품하기도 한다.

영국의 주요 조명기구 유통업체로는 Denmans Electric Plc, JF Poynter Ltd., Direct Lamps Ltd.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유통업체들 외에도 Tesco, Sainsbury 등 대형 슈퍼체인들도 자사상표로 전구 등을 OEM 주문 생산, 직접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조명기구 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2000년 4월부터는 CE마크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HS 940420. 11 (일반 필라멘트 및 할



- 로젠 램프) : 5.4%
- HS 940420.30(세라믹제) : 5.6%
- HS 940520.50(유리제) : 4.2%
- HS 940520.91(기타) : 3.1%

※ 수입상 명단

- Denmans Montrose Ltd  
28-30 Southbank Business Centre  
Ponton Road  
Vauxhall London SW8 5BL  
Tel : 44-171 622 1221  
Fax : 44-171 622 5152  
Contact : Mr David West
- Lampways Ltd  
Allenby House Knowles lane  
Bradford West Yorkshire BD4 9AB  
Tel : 44-1274 686 666  
Fax : 44-1274 473 422
- JF Poynter Ltd  
Maxim Lamp Works Cuckfield Road

Hurstpierpoint Hassocks West  
Sussex BN6 9RW  
Tel : 44-1273 834 890  
Fax : 44-1273 834 979  
Contact : Mr Peter Slade(Managing  
Director)

- Direct Lamps Ltd  
37 Bowlers Croft Honeywood Road  
Cranes Industrial Estate Basildon  
Essex SS14 3DZ  
Tel : 44-1268 532 222  
Fax : 44-1268 234 255  
Contact : Mr Holmes
- Searchlight Electric Ltd  
Searchlight Electric Trading Estate  
Water Street Manchester M3 4JV  
Tel : 44-161 834 5452  
Fax : 44-161 839 5133  
Contact : Mr Hamburger(Managing  
Director)

## 캄보디아, 전화통신사업 민영화 계획

캄보디아 체신청은 그동안 정부 운영이던 전화 통신사업을 민영화 하기 위해 Cambodia Telecom(정부 51% 민간 49%)을 설립해 국내 전화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 전화 서비스 사업을 전담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민간부문으로 지정된 AZ Distribution Co., Ltd.는 캄보디아 현지법 인으로 현재까지 통신분야의 사업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로 결국 외국의 기술과 자본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AZ사는 일본의 NTT와의 합작도 검토한 바 있으나 협상이 결렬된 적도 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될 Cambodia Telecom이 제대로 조직을 갖추기에는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프놈펜 시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전화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추가로 국제전화 서비스

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KOTRA 프놈펜 한국무역관이 지난 9월 14일 AZ사의 사장 Mr. Ing Bun Howa를 방문해 한국측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동 사장은 9월 하순까지는 동사가 희망하는 외국합작의 범위를 정하여 통보하기로 약속했다.